

“이준석 수사 윤핵관 개입, 보도 보고 알아”

이준석 “경찰 내부 윤핵관 수사 개입 증언 나와” 윤희근 경찰청장, 이준석 성상납의혹 입장 밝혀

윤희근 신임 경찰청장이 22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에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오자 “언론 보도를 처음 인지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경찰청장은 구체적 사건을 지휘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전했다.

아울러 “그래서 어찌 보면 보도를 통해 그런 사실을 처음 인지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답변 드릴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언론사 기사 링크를 공유한 뒤 “경찰 내부에서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이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며 “예상하

던 일이지만 증언까지 나오니 황당하다”고 전한 바 있다.

현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 수사대는 이 전 대표에게 성상납을 했다고 주장하는 김성진 아이카이트 대표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해 피의자인 이 전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윤 경찰청장은 공소시효가 2주가량 남은 대선 선거사법 수사에 대해서는 “9월9일이 공소시효이고 송치 이후 검찰에서도 최소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감안해서, 협의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사건인데 공소시효가 도

과대 사건 (수사)를 못하는 일이 없게 할 것이고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우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지, 송치할지 검찰과 협의하며 진행하고 있기에 관련 기능서 걱정하신 그런 일은 없다고 보고해 당연히 그리 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20대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약 70건이다. 경찰청은 공소시효 완성을 앞두고 전국 시도경찰청에 수사를 독려하고 있다.

김재환기자



완도해경, 민 관 합동 정박어선 화재진압 훈련 실시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정수)는 17일, 회진항과 마량항에서 항포구 정박어선 화재 발생을 가정한 민 관 합동 화재진압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장흥소방, 선박화재 대응 유관기관 합동소방훈련 실시

장흥소방서(서장 신항식)는 지난 17일 장흥군 회진면 회진항에서 선박화재를 대비한 유관기관·단체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장흥=김도영기자



광양소방, 해양 내수면 수난사고 공동대응체계 구축 MOU 체결

광양소방서(서장 서승호)는 광양만 및 섬진강과 백운산 계곡 등의 수난사고 대응을 위해 해양환경인명구조단 광양구조대와 광양소방서가 ‘해양 내수면 수난사고 공동대응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전했다.

광양=기동취재본부



진도소방, 다중이용시설 화재대피 안전컨설팅

진도소방서(서장 김광선)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대피 및 피난동선 확보대책을 오는 8월까지 관공 및 휴게, 위락시설 등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진도=조성용기자



담양소방, 곡성군 주택화재...소화기로 큰불 막아

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지난 15일 곡성군 입면의 한 주택 내 김치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초기에 관계인이 소화기를 사용해 큰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담양=박종영기자



광주 동부소방, 전통시장 소방출동로 확보 훈련 실시

광주 동부소방서는 대인시장과 남광주시장에서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초기 대응할 수 있도록 소방출동로 확보훈련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광주고법 “금호타이어 공장 조리원들 근로자 지위 인정”

“직·간접적으로 업무 수행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

금호타이어가 공장 구내식당 협력업체 조리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심은 금호타이어가 협력업체 조리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업무를 지시한 만큼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최인규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5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김씨가 금호타이어 근로자임을 확인했다. 또 원고 지모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고용 의사 표시를 하라고 금호타이어에 주문했다.

다만, 1심 중 정년퇴직한 다른 원

고 윤모씨의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청구는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해당 원고 5명은 1992년부터 2010년 사이 금호타이어와 곡성공장 식당 운영 도급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에 입사해 일해 온 조리원들이다.

파견법에서 정한 사용 사업주인 금호타이어가 2년을 초과해 파견 근로자인 자신들을 계속 사용한 만큼 직접 고용 관계가 형성됐다고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의 확인을 구했다.

금호타이어는 ‘곡성공장 소속 근로자들과 계약·파견 관계가 형성됐다고 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금호타이어는 원고들이 독립된 공간에서 조리·배식 업무에 종사한

점, 주로 타이어 제조 공정을 맡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공동 작업을 하거나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업무 수행에 관한 지시를 받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파견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파견법 취지, 도급 계약과 실제 업무 내용 등을 두루 고려해 원고들이 금호타이어 직원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메뉴 선정, 식재료 주문·검수, 조리 제공 의무 등 계약서와 담당 업무 내용 등에 비춰 보면 금호타이어는 소속 영양사 등을 통해 원고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업무 수행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 원고들은 금호타이어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는 곡성공

장 구내식당 운영비와 음식의 질을 직접 결정하면서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했다. 식당 협력업체는 음식 조리원의 수와 교육·훈련·작업·휴게 시간·휴가·근무 태도 점검 등에 대한 결정 권한도 독자적으로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과 금호타이어는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에 원고 5명의 임금 차액분(고용 간수 각 3370만 원-9304만 원)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원고 5명은 타이어 제조 지원 업무를 한 12명과 함께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금호타이어의 실질적인 지휘를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아 항소했다.

최이슬기자



오늘부터 추석 SRT 승차권 비대면 예매 시작
추석 명절 SRT 승차권 비대면 예매 시작을 하루 앞둔 22일 서울 강남구 SRT 수서역 발권 창구에 추석 승차권 예매 안내문이 붙어있다. SR은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2022년 추석 명절 SRT 승차권 100% 비대면(온라인·전화) 예매를 진행한다. 예매 첫날인 23일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을 우선 대상으로, 24일에는 경부선, 25일에는 호남선 예매가 각각 진행된다.

‘주말 영향’ 광주·전남 일일 확진자 5000명대

21일 기준 광주 2661명·전남 2633명 확진

주말 진단 검사 감소 영향으로 광주·전남 일일 확진자 수가 5000명 대로 일시적으로 감소했다.

22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전날 하루 동안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광주 2661명(해외 15명)·전남 2633명(해외 15명)으로 총 5294명이다.

앞서 광주·전남에선 광복절 연휴 직후인 지난 16일부터 닷새 연속 9000명 대 안팎 확진자를 기록했다.

16일 1만 3030명, 17일 1만 4328명,

18일 1만 1425명, 19일 1만 447명, 20일 9089명 등이다.

방역 당국은 주말 사이 진단검사를 도맡는 병원이 휴업하는 등 검체 채취 건 수가 크게 줄어, 확진자가 일시적으로 급감한 것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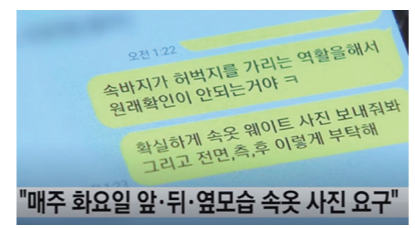
전날 기준 광주 지역 확진자 중 14명은 위중증 환자, 입원 치료자는 7명이다. 나머지 3360명은 재택 치료 대상자다. 또 확진자 1명이 숨겨 누적 사망자는 600명으로 늘었다.

최이슬기자

전날 22개 시·군 별 확진자 수는 순천 530명, 목포 414명, 여수 318명, 광양 242명, 나주 184명, 무안 140명, 화순 108명, 영광 94명, 해남 77명, 고흥 70명, 영암 62명, 강진 55명, 장흥 54명, 완도 51명, 보성 45명, 곡성 38명, 함평 35명, 구례 32명, 장성 28명, 담양 25명, 진도 24명, 신안 7명 등이다.

전날 전남에서는 위중증 환자 32명이 집계됐다. 사망자는 3명이 늘어 누적 565명이다.

최이슬기자



기획사 대표가 연습생 몸매 확인한다며 ‘속옷 사진’ 요구 논란

“성적인 의도 전혀 없었다”

한 연예 기획사에서 연습생들에게 정기적으로 속옷만 입은 사진을 보내라고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YTN에 따르면 기획사 대표 A씨는 연습생들에게 매주 속옷만 입은 전신사진을 요구했다. 그는 연습생들에게 허벅지와 허리, 팔뚝 둘레까지 재서 치수를 알려달라고도 했다.

A씨는 연습생들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케이팝 아이돌이 쉽게 되는 게 아니다”라며 질책했고, 같은 색깔 속옷 사진을 2주 연속으로 보내면 “지난 주에 보낸 사진 아니냐”며 따졌다고 한다.

대만 국적의 20대 아이돌 연습생은 “회사가 사진 보내달라 해서 고모에게 이야기했는데 ‘이 정도는 좀 이상하지’라고 말해서 제가 안 보냈다”며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그 사람(대표)이 어디에 쓰는지 모르지 않나”라며 걱정했다.

기획사 대표 A씨는 “걸그룹 데뷔 준비 기간을 줄이기 위해 동의를 받고 진행한 것일 뿐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지난달 연예 기획사 사무실에서 대표의 컴퓨터와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포렌식 분석하고 있다.

뉴시스